



* 위_ 동아일보, 조선일보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민주 민족 언론 선언>
아래_ 구속된 안종필 위원장, 홍종민 총무
등을 즉각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민권일지는 당시 1년간 언론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거나 보도되었더라도 정권비호와 홍보의 내용으로 왜곡된 사건들, 특히 학생운동, 종교계 사회운동, 노동운동 등의 내용을 기사화했다. 그리고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 기념일에 발행한 '동아투위소식'에 민권일지를 실었다. 안종필은 그렇게 '길거리 신문 편집장'이 되었다.

기념식은 정보부의 방해로 장소를 구할 수 없어서 명동에 있는 한일관에서 진행되었다. 70여 명의 동아투위 위원들과 다수의 민주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포된 소식지에는 민권일지 125건과 함께 '자유언론을 압살하는 모든 제도와 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진정한 민주 민족 언론의 좌표'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그날 밤 총무 홍종민이 연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안종필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동아투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있는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운 일인가?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논리를 물리적인 힘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을 만큼 권력층의 논리는 그토록 허약한가? ... 우리는 이번 민권일지사건에서 보듯이 진실을 두려워하고 정당한 논리를 기피하며 모든 사회문제를 힘으로 처리하려는 자세가 지양될 때까지 우리의 소리를 계속 외칠 것이다."

1978년 '동아투위소식' 송년 특집으로 제2차 민권일지가 제작된 것과 관련하여 윤활식, 이기중, 성유보 위원이 구속되면서 총 10명의 위원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다. 이에 항의농성이 이어지고 조선투위를 비롯한 각계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었다.

동아투위는 안종필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대부분이 구속되자 "이 땅의 자유언론은 감옥으로 잡혀갔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을 '동아투위민권일지사건'으로 이름 붙여 강력한 법정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에 이돈명 변호사를 비롯해 법조계의 양심적인 변호사 22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8차에

걸친 공판과 항소심에 대응해 나갔다.

황인철 변호사: 지금과 같은 긴급조치 아래에서도 자유언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종필: 물론입니다. 긴급조치는 국가 위기 등 긴급사태에만 발동되어야 하는 인위적인 것이지만 언론자유는 하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구치소에 갇혀 보니 듣고 말하고 보는 것은 인간의 존재 양식, 바로 그 자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듣고 보고 말하지 못하면 미치고 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자유언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썩고 미치고 맙니다.

민중을 위한 진정한 언론을 꿈꾸다

안종필은 '징역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그해 12월 4일 구속 집행정지로 출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 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징역에서 얻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1980년 2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함세웅 신부는 추도사에서 "선생님께서 쓴 언론은 붓으로 쓴 글씨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피로써 쓴 역사의 기록입니다."라고 써 기자 안종필의 글과 삶을 불러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늘 미소 지으며 웃음으로 동료들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는 언론 자유를 억압하려는 권력에 맞서 싸우다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다.

"민중을 위한 진정한 신문은 가로쓰기를 해야 한다. 신문이 너무 식자층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를 위한 진정한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전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 시대가 오면 국민이 골고루 출자해 그들이 주인이 되는 신문사를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렇게 되면 편집권이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안종필이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남긴 말이다. 그의 지론은 현실이 되어 그가 죽고 8년 뒤 국민주 모금으로 세운 언론사가 생겨나고 한글 전용 신문이 일반화되었다.

동아투위는 그를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언론의 신장과 진실 보도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이들에게 안종필자유언론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금도 바른 언론 자유언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안종필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좌표이다. **민중당**



* 안종필상 시상식 ©전국언론노동조합